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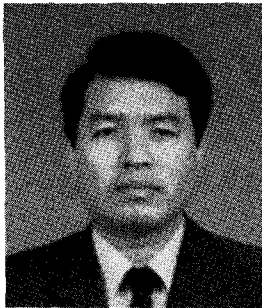
당뇨가 오래된 경우, 예를 들어 10~15년 이상된 경우에는 당뇨합병증의 하나인 신경합병증의 증상이 생기며, 비교적 초기의 당뇨환자에서도 정밀한 방법으로 검사하면 거의 100%에서 신경합병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혈당조절을 잘 하여도 약 1/4의 환자

# 단발성 신경합병증

에서는 신경합병증의 증상이 생기며 **혈당조절이 잘 안된 경우에는 70~80%에서 심한 신경합병증의 증상을 나타낸다.**

신경합병증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증상은 양쪽 발, 다리가 화끈거리고, 아프거나, 바늘로 찌르는 느낌, 무감각, 예민한 감각** 등이다. 심한 경우에는 발의 통증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감각이 무디어지면, 발가락이 굵거나 썩어도 아픈줄을 모르고 관절이 망가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이와 같은 신경합병증을 통틀어서 「대칭성, 다발성 신경병증」이라고 한다. 혈당조절이 개선 되면서 과거와 같은 하지 절단의 경우는 많이 없어졌으나 아직 당뇨병성 신경합병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발성 신경병증**이다.

여기서 설명드리고자하는 「**단발성 신경병증**」은 다발성 신경병증보다 훨씬 드물지만



**김선우**

〈청담내과 클리닉〉

증상이 특이하고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간략하게 특징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단발성 신경병증**은 말 그대로 **하나의 신경에만 마비가 오거나 서로 다른 몇개의 신경에만 합병증이 오는 질환**이다. 다발성 신경병증과 구별되는 점의 또 하나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고, 대개 심한 통증이 함께 생기므로 마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증상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 두개신경(cranial nerve)에 생기는 단발성 신경병증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세번째 두개신경에 오는 신경병증으로서 대개는 나이 많은 환자에서 생긴다. 환자는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눈꺼풀이 내려앉아서 한쪽 눈을 뜨지 못한다. 통증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매우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드물지만 네번째, 여섯번째 두개신경에 마비가 와서 갑자기 안구운동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일곱번째 두개 신경에 마비가 오면 안면신경이 마비된다. 그 밖에도 두개신경의 어떤 신경이든 단발성 신경병증이 올 수 있다.

### 말초신경에 생기는 단발성 신경병증

상지에서는 척골신경, 요골신경, 정중신경 등에 마비가 와서 손처짐(wrist drop : 손목에서 손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오거나 하지의 신경이 마비되어 족하수(foot drop : 발목에서 발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가 생기기도 한다. 드물게는 넓적다리 바깥쪽에

신경이 마비되어 그 부위에 통증이 오거나 감각이 예민해지기도 한다. 또한 완터널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으로 인하여 손에 통증이 오고 감각에 이상이 생기거나 손근육의 힘이 빠지기도 한다.

### 척수신경근증(radiculopathy)

척수신경이 분포되는 부위에 따라 심한 복통이 오거나 심한 흉통이 생기는데 마치 대상포진에 생길 때와 같은 통증과 지각과민이 증상이 생긴다. 특히 수면중에 악화되기도 한다. (당뇨병성 근위축도 단발성 신경병증의 범위에 속하나 다른 항목에서 취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당뇨의 신경합병증에 대한 진단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단발성 신경병증**의 경우에는 **임상증상과 징후를 잘 관찰함으로써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다.** 대부분은 증상이 갑자기 생기고 통증이 있으므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증상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이 질환은 마비된 신경에 분포되어 있는 미세혈관의 장애로 생긴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한 치료 없이도 수일 내지 수주내에 저절로 회복된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성 신경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인슐린치료가 원칙이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다량의 비타민을 투여하면** 도움이 된다. Aldose reductase inhibitor나 myoinositol 등의 치료제가 시도되나 아직 진통소염제, 대증요법등이 없이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